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굴종적 일제 강제 동원 해법 폐기 촉구

부안군의회가 지난달 31일 제 38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굴종적 일제 강제 동원 해법 폐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3월 6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국내 기업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안군의회는 이 방안이 국제 인권법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와 충돌하며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부안군의회를 대표해 제안설명에 나선 이강세 의원은 "일본이 최근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강제동원에 대해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하고, 목도 관련 내용은 일본 영토라는 기존 억지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역사적·반인권적·반헌법적인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2023년 군민대상 후보자 군민 의견 수렴

부안군은 2023년 부안군민대상 수상자 선정에 앞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군민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안군민대상은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 군민의 명예를 높이고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군민을 발굴하여 그 공적이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3월 접수기간동안 6개분야(효열, 산업, 공익, 문화, 체육, 애환) 12명이 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접수를 마쳤다.

군민접종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후보자의 주요 공적을 공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와 부안군청 지지행정담당관(580-4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원자력안전교부세 국민청원 돌입

부안군, 교부세 신설 위해 23개 지자체장 공동청원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부회장 권익현 부안군수)은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9년 출범한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3월 비상계획구역 범위가 확대된 부산 7개 지자체의 신규 참여로 23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지자체장 공동으로 청원을 했다. 국민청원 동의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이며, 기간 동안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심사를 받게 된다.

그간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의 23개 기초지자체 503만 국민이 전기 생산과 원자력 연구개발 등 국가정책 수행으로 인한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원전 관련 사건·사고로부터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왔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성비상계획구역의 확대로 지자체 방사능방재 의무와 주민보호 책임은 가중되었음에도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성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는 원전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방사능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주요 골자이다.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0.06%를 올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고, 매년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여 방사능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능 사고에 대비하고 주민보호사업과 복지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은 권익현 부안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는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라면서 "이번 국회 청원동의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청원 동의의 참여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앞으로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5월 초순경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책토론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

정읍시-MG새마을금고, 취약계층 물품 지원 협약 체결

정읍시(시장 이학수)와 MG정읍새마을금고(이사장 김석주)는 3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지원과 자원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 간 긴밀한 공동협력력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가정 지원을 위한 연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결식 위기에 놓인 위기가정 지원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오선익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김석주 이사장과 정안현 전무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해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과 결식 위기 및 소외계층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정읍새마을금고는 수성동, 내장동, 시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발하게 운영 중인 '희망 나눔, 공유



냉장고'에 1년간 월 2회에 걸쳐 약 3,600원 상당의 김치 500kg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지역 취약계층과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공유냉장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정읍새마을금고와 상호 간 협력으로 소외계층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청정 축산 사수

내달 5일까지 소·염소 백신 일제 접종... 항체 형성 검사도 시행

정읍시가 구제역 유입 방지와 축산 청정 정읍 유지를 위해 3일부터 내달 5일까지(5주간) 지역 내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일제 접종한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높은 치사율의 국가 재난전염병이다.

접종 대상은 소 8만 마리, 염소 7천7백 마리다.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시가 백신을 일괄 구매(100% 보조)해 공수의를 통해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백신을 50% 보조받아 지역 축협에서 구입 후 자체적으로 일제 접종하면 된다.

구제역 백신접종을 마치고 1개월 이후부터는 백신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일 경우 해당 농가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접종·재검사 등 특별 관리하고, 정부 지원사업 혜택에서도 배제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시는 전염성이 높은 구제역 바이러스 때문에 지역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소·염소에 대해 정기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폐지는 6개월 만에 도축장에 출하하는 등 사육 기간이 짧아 접종 효과가 낮으므로 연중 상시 접종하고, 사슴은 마취 등 문제로 제작(불 제거)·출산 시기에 맞춰 매년 7~8월 일제 접종을 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최고"의 방법"이라며 "백신접종이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운곡 람사르 습지 보전 캠페인 진행

고창군은 운곡 람사르 습지 생태공원 및 생물권보전관리센터에서 세계 습지의 날 맞이 습지 보전 캠페인이 진행됐다.

고창군 생태관광주민 사회적 협동조합(이사장 전안범)의 주관으로 습지의 보전과 가치를 높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이 캠페인은 총 2차로 기획되어 있으며, 지난 4월 1일에 1차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운곡습지 마을 주민·자원봉사자·자연환경해설사 등 4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평소 조류가 자주 출몰하는 고창군 생물권보전센터와 운곡습지 홍보관 등의 건물에 조류충

돌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곡습지 생태공원 내 새집을 설치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습지 내 조류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 830여 종의 생물종을 보유한 습지 생태계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어 5월 20일에 진행될 2차 캠페인에서는 운곡습지 홍보영상 상영 및 생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운곡습지와 주변 6개 마을(부귀, 매산, 송암, 호암, 용계, 독곡)은 지난 2022년 11월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람사르 습지도시"로 국제 인증을 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제78회 식목일 기념행사 개최

부안군은 봄의 기운이 완전히 접어드는 길목인 3월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부안을 해탈마루에서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부안군민, 공무원, 산림조합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철쭉 3종과 수

국 3,680주를 식재하며 소통과 화합의 장을 가졌다.



이날 내 나무 갖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여 나무심기 행사에 힘을 보탠 참여자들에게 수국 380본을 나눠주며 나무의 나무를 갖고 심고 가꾸는 것의 참된 의미를 전파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직접 나무를 식재하며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알려진 산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올해 숲을 통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목표로 경제림조립 5ha, 큰나무공익조립 5ha, 미세먼지조립 3ha, 섬지역산림가꾸기 3ha 총 16ha의 조립사업을 추진하여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9회 정읍시 재능 나눔 축제 성료

재능 나눔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제9회 정읍시 재능 나눔 축제'에 시민 1,500여 명이 방문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일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광장에서 진행된 이번 축제는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철수) 주최로 열렸다.

축제에는 이학수 시장과 고경운 정읍시의회 의장을 비롯 영영선 도의원과 시의원, 김철수 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내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신나는 맨스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20여 재능기부 단체가 참여해 시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빈터 식물 식재와 업사이클링 공예, 귀반시요법, 로봇 체험, MBTI, 공예 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활동이 마련돼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